

# 국민 95% “납품단가 연동제 필요... 공정거래 환경 구축을”

**중기중앙회, 국민 1000명 인식조사**  
 中企 납품단가 제대로 못받는 현실에 42% ‘매우불공정’ 53% ‘불공정’ 95% 공정환경 조성 정부역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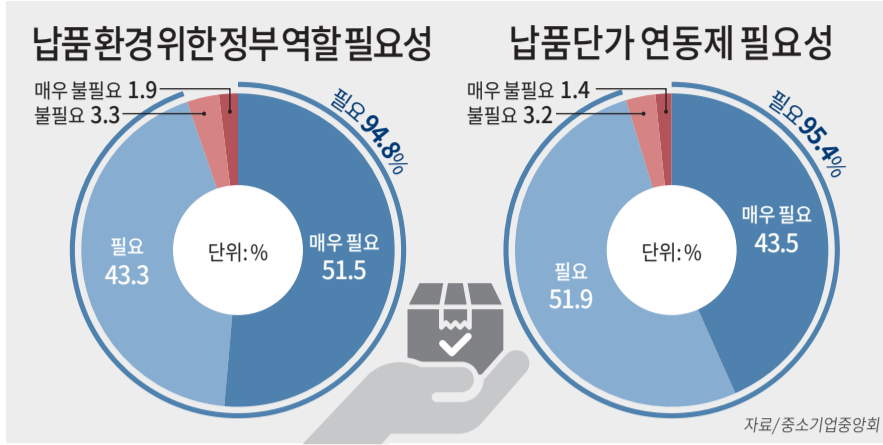
정부가 납품단가 연동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 절대다수는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납품거래 환경 구축이 경제 성장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정한 납품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대부분은 정부의 ‘적극적 역할’도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모습이다.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에 대해서 10명 중 9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편 중소기업부가 추석 연휴 이후 곧바로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대기업 등 40곳이 넘는 위탁기업이 신청한 상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말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납품단가 연동제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해 6일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7.9%는 경제



성장을 위해 공정한 납품거래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아울러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위탁기업인 중소기업들이 납품단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94.5%가 ‘불공정하다’고 인식했다. 41.5%는 ‘매우 불공정’, 53%는 ‘불공정’하다고 밝혔다. 또 공정한 납품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의 역할이 ‘일정부분 필요하다’는 것에는 94.8%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그러면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 필

요한지를 묻는 질문에는 ‘매우 필요’가 43.5%, ‘필요’가 51.9%로 응답자의 95.4%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관련 제도 도입이 필요한 이유(중복 응답)로는 ▲공정거래 환경 조성(53.6%) ▲상생협력 문화 조성(38.1%) ▲납품단가 제값받기에 도움(29.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납품단가 연동제 실시가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와 동반성장에 기여하는 지에 대해서 91.1%가 긍정적이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달

말 진행한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납품단가 연동제는 시장의 과도한 개입 때문에 14년간 법제화를 하지 못했다. 9월 중순 시작하는 시범사업을 6개월간 진행하고 법제화를 위해 법무부와 계속 소통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의 이번 설문조사 결과바람직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방식에 대해선 88.7%(주요 조건 51.4%+모든 조건 37.3%)가 최소한의 주요 조건들을 법제화해야한다고 답했다.

세부적으로 ‘주요조건들만 법으로 정하고 세부사항은 자율로 정해야한다’는 응답이 51.4%, ‘원자재 종류, 연동조건 등 모든 조건들을 법으로 정해야한다’는 응답이 37.3%에 달했다.

반면 ‘모든 조건들을 기업간 자율로 정하는 방식’에 대해선 9.5%에 불과했다.

중기중앙회 양찬희 혁신성장본부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원자재값 급등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들의 납품대금 제값받기가 어려운 불공정한 환경에 대한 국민들 인식과 함께 납품단가 연동제를 놓고 공감대도 매우 크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며 “납품단가 연동제를 기업간 선의나 자율에 맡길 경우 한계가 있는 만큼, 여야가 민생법안으로 합의한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이 국회 민생특위를 통해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중기부가 지난 2일 기준으로 발표한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참여기업 모집 결과에선 위탁기업 41개사, 수탁기업 294개사 등 총 335개사가 신청했다.

신청위탁기업 중에선 대기업이 29개사, 중견기업 7개사, 중소기업 5개사가 포함돼 있다.

중기부에 따르면 시범운영 참여기업 모집과정에서 ‘납품단가 연동제 TF’에 참여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LG전자, 현대중공업 그리고 KT 등이 적극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부는 대·중소기업·농업협력재단과 선정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참여기업 선정하고 이달 14일께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을 열고 시범운영에 본격 들어갈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중기부, 中企 국내외 판로개척 도왔다

**‘2022 대한민국 소싱위크’ 성료**  
 삼성SDS와 물류부담 완화 MOU

중소기업들의 국내외 판로개척을 돕는 ‘2022 대한민국 소싱위크’가 6일부터 이틀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렸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소싱위크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유통센터,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 동참한다.

아울러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 부담을 줄이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기부와 삼성SDS가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삼성SDS는 지난해 8월 디지털 물류 서비스 ‘헬로 스퀘어’를 새롭게 오픈해 중소기업이 손쉽게 수출입 물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틀간 열리는 행사에는 44개국 바이어 180개사와 백화점, 대형마트, 홈쇼핑 등 국내 60개 유통망에서 바이어 145명 및 중소기업 1100개사가 참여한다.

해외 바이어와 중소기업 700여개사가 참여하는 1대1 온·오프라인 수출상담회, 유통 바이어와 중소기업 250여개사가 참여하는 1대1 내수 상담회도 운영한다.

또한, 수출상담회와 함께 국내외 바

이어가 현장에서 직접 중소기업 우수제품을 체험해볼 수 있도록 뷰티, 패션, 소형가전 등 국내외 수요가 높은 소비재 분야 중소기업 100개사를 선별해 ‘우수제품 전시관’도 꾸렸다.

GS·롯데·현대·공영홈쇼핑 등 TV홈쇼핑 유통 담당자와 함께 해외 홈쇼핑에 입점해 수출 가능성이 높은 제품을 발굴하는 해외 홈쇼핑 품평회도 진행했다.

아울러, 중국, 베트남 등 중소기업 주요 수출국가의 인플루언서를 초청해 중소기업 제품 시연회와 라이브커머스 방송 판매전을 진행해 바이어뿐만 아니라 현지 소비자에게 우수한 국내 중소기업 제품을 소개하는 시간도 갖는다. /김승호 기자

## 창진원 임직원들, 전통시장 활성화 나서

장보기 캠페인·기부물품 전달

창진원 임직원들이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 소비 활성화를 위해 나섰다.

6일 창진원에 따르면 지난 5일 세종시에 있는 세종전통시장을 방문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캠페인과 소외계층을 위한 기부물품 전달식을 가졌다.

창진원 임직원 60여명은 사전에 구매한 온누리상품권으로 시장내 점포에서 장을 봤다. 이날 구입한 쌀, 고기, 생필품 등은 세종시장에인복지관에 기부했다.

아울러 안전한 상점이 만들기 일환으로 소화기 등 안전용품을 세종전통시장 상인회에 전달하는 동시에 전통시장 방문객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동행세일’에 동참할 것도 호소했다.

김용문 창진원장은 “대한민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7일 간의 동행축제’가 성황리에 개최되길 희망하며 지역경제 활성화가 절실한 시기에 창진원이 작은 힘을 보탬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내년에는 지역 내 공공기관과 협업을 확대해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 교원, 답체인지 아이디어 프라이즈 선발

우승팀에 상금 500만원 전달

교원그룹이 사내 스타트업 발굴 프로그램 ‘답체인지 아이디어 프라이즈’ 2기를 최종 선발하고 창업 지원에 적극 나선다.

6일 교원그룹에 따르면 지난 4월 임직원을 대상으로 신사업을 비롯해 제품과 서비스 관련 사업 아이디어를 공모한 결과 총 22개팀이 지원했다. 이후 내부 심사를 거쳐 8개팀을 선발해 2개월간 빌드업(Build-up) 시간을 갖고 사

업 계획과 아이디어를 구체화했다.

교원그룹은 최종 IR을 진행하고 ‘스마트 장례 준비 서비스’와 ‘성인 외국어 학습 플랫폼’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표한 2개 팀을 최종 선발했다. 1위를 차지한 우승팀에는 상금 500만원과 사업화를 위한 초기 투자를 진행한다. 준우승팀에는 300만원의 상금을 전달했다.

우승팀이 제안한 ‘스마트 장례 준비 서비스’ 아이디어는 장례 준비부터 이용, 추모 서비스를 모두 아우르는 장례 전문 플랫폼 사업이다. /김승호 기자



교원그룹 장동하 기획조정실장(왼쪽 두번째)이 ‘답체인지 아이디어 프라이즈’ 2기에서 최종 우승한 사내 스타트업팀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교원그룹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 유진기업, 친환경 논슬립 고무바닥재 출시

‘홈데이 러버플로링’으로 시장 공략

유진기업이 친환경 논슬립 고무바닥재 ‘홈데이 러버플로링’으로 친환경 자재 시장 공략에 나섰다.

6일 유진기업에 따르면 홈데이 러버플로링은 고무바닥재 전문회사인 알엠이 수년간의 연구개발 끝에 탄생한 제품으로 공급자 개발생산방식(ODM) 방식으로 유진기업에 독점 납품하고 있다.

유진기업은 기존 계단바닥재 및 물류센터, 창고 바닥재의 하자 발생으로 인한 고객 불만이 생기자 친환경 고무를 활용해 환경친화적이면서도 내구성

이 우수한 바닥재 제품에 투자를 결정했다.

홈데이 러버플로링은 유해화학물질을 일체 사용하지 않아 인체에 매우 안전하다. 휘발성유기화합물을 0.2mg/m<sup>2</sup>.h 이하로 엄격히 관리하고 있으며 톨루엔, 포름알데히드, 1,3-부타디엔 함량이 친환경 규정을 만족한다. 중금속도 검출되지 않는다.

화재 시 유독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화재 안전성과 대장균, 녹농균, 황색포도상구균 등 유해세균이 24시간 후 99.9% 소멸되는 항균성을 갖추고 있다. /김승호 기자

## 비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경찰, 김건희 여사 ‘줄리 의혹’ 열린공감TV 전 대표 등 송치 /사진 뉴스스  
 ▲“론스타, 먹튀 넘어 속이고 튼 속튀”...법무부, 판결 요지 공개

▲태풍 지나가고 불청객 ‘식중독’ 파고 든다  
 ▲“여기서 수영하면 1억 줄게”...‘위험천만’ 태풍 생중계한 유튜브



▲모다모다 이어 염모제 5종 성분도 사용금지...성분 변경 등 촉각  
 ▲검찰, 이재명 ‘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경기도청 관계자 압수수색 /사진 뉴스스